

가해관련_면담 내용

가해학생 조○○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조○○ 학생, 최근 박○○, 이○○, 최○○ 관련해서 네가 올린 영상과 글이 문제가 되고 있어.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?

조○○: 네... 그날 체육시간에 박○○이 달리기하는 게 좀 웃겨 보였어요. 그냥 장난삼아 찍었고, '웃긴애들' 채팅방에 공유했어요. "걷는 거냐 뛰는 거냐ㅋㅋ"라고 썼는데, 그때는 진짜 그냥 웃기려고 한 거였어요.

교사: 박○○에 대해 다른 댓글도 달았다고 하던데?

조○○: 친구들이 반응이 좋았어요. 그래서 "지진남", "다이어트 광고 모델" 같은 말도 덧붙였는데...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줄은 몰랐어요.

교사: 이○○ 발표 장면도 촬영했지?

조○○: 네... 이○○이 말을 더듬는 걸 보고 순간 웃겨서 찍었어요. "랩하나?"라고 올렸는데, 저희끼리만 보는 채팅방이라 가볍게 생각했어요.

교사: 박○○, 이○○, 최○○에게 별명을 붙였다는 건?

조○○: 네, 셋이 자주 붙어 다니길래 그냥 '삼대장', '트리오'라고 불렀어요. 다들 웃어서 계속 부르게 됐어요. 체육시간에도 같은 팀 되니까 "팡팀 완성"이라고 한 건 그냥 농담이었어요.

가해학생 정○○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정○○ 학생, 박○○과 이○○의 사진을 SNS나 채팅방에 올린 이유가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?

정○○: 조○○이 올린 박○○ 달리기 영상이 웃겨서요. 저도 그냥 재미있게 보고 친구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어요. "오늘의 웃음 포인트"라는 멘트도 그렇게 생각 없이 썼어요.

교사: 그 외에도 비교하는 말들을 했다고 하던데?

정○○: "박○○ 옆에 서면 내가 날씬해 보일 것 같다"는 말이에요? 그냥 제 체형 얘기하면서 농담처럼 한 거였는데...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요.

교사: 이○○ 점심시간에 촬영한 사진도 너였니?

정○○: 네, 혼자 책 읽고 있는 모습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'외톨이의 일상'이라고 채팅방에 올렸어요. 친구들이 웃을 줄 알았지, 이○○이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.

교사: 청소시간에 피해학생들 담당 구역을 일부러 더럽혔다는 이야기도 있어.

정○○: 장난이었어요. 다들 웃길래 저도 그런 행동을 했어요. "청소도 제대로 못하네"라고 말한 건 심각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.

가해학생 김○○ 면담 시나리오

교사: 김○○ 학생, 최○○의 복장이나 외모를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들었는데,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래?

김○○: 그날 최○○이 입은 교복 스타일이 좀 특이했어요. 그래서 사진 찍어서 단독방에 "패션 테러리스트 등장"이라고 올렸어요. 그냥 반 분위기 재미있게 만들려고 한 거였어요.

교사: 이후에도 외모 관련 발언이 더 있었다고 하던데?

김○○: "반 평균 외모 떨어진다", "최○○만 전학 가면 완벽할텐데" 같은 말도 했는데... 지금 생각하니 너무 심했어요. 그때 그냥 다들 웃고 있었어요.

교사: 이○○ 발표 영상 관련해서는?

김○○: 조○○이 올린 걸 보고, 저도 장난으로 "말더듬이 콘테스트 1등감", "수업 집중 안됨" 같은 말 썼어요. 반응 보면서 따라한 것도 있어요.
